팔관회 복원 등 불교문화 전통 계승에 진력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및 계획 발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는 1월 6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년 부산불교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은 떡 커팅식, 오른쪽은 신년하례 장면.

1월 6일 코모도호텔서 신년하례회 성료
2014년 문화 복지 사업 등에 전력 다짐

2013년 6만 명의 한반도평화대법회 부산 개최를 이끌며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의 모범을 보여 온 부산불교계가 신년하례법회를 행사를 갖고 갑오년 새해에는 불교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1월 6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년 부산불교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상임부회장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불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부산에서는 다양한 불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승가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가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부산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합심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수불스님은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팔관회를 범국민적인 문화행사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향토 부산의 문화적 토양을 풍성하게 가꾸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윤희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승가와 재가가 합심, 화합하고 부산불교계가 부산시민의 복전이 되어 귀감이 되는 불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전60주년을 한반도평화대회를 성황리에 회향한 공로자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과 전 부산광역지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 회장 이상 두 명이 공로상을 수상하고, 이임사무총장 범산 스님(영주암 주지)은 사명대사호국광장 건립 등 치적을 인정 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범산 스님에 이어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신임사무총장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임명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신임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2014년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부산연등축제, 팔관회 복원 등 전통 및 불교문화의 발굴과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청소년문화사업,사회복지사업,새터민 지원 등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교류를 통한 사회공헌사업 △불법홍포 및 사회교화사업과 봉축행사, 성도재일, 열반재일, 출가재일 등 기념행사 봉행과 회원사찰의 권익보호, 불교교권수호를 위한 포교사업 등을 추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신년하례회는 김동열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상임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2013부산불교의 발자취, 공로패 전달, 임명장 전달, 2014주요사업 발표, 봉행사, 신년사, 축하공연, 축하 떡 커팅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연등축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2014 부산연등축제기획단은 제1차 주요일정 발표



부산연등축제기획단은 2014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3부산연등축제 거리연등 퍼레이드 모습

2014부산연등축제기획단(위원장 심산)은 1월 9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차 기획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부산연등축제의 전체 일정과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획위원장 심산 스님은 "2014부산연등축제는 불교 행사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시민의 축제,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노력과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며 부산연등축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이날 기획단은 2014부산연등축제의 성공적 회향을 위한 주요일정 및 봉행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은 △전통등강습회(1월~3월) △연등축제 봉행위원회 결성법회(2월) △연등축제 보존과 발전세미나(3월) △창작등 경연대회및 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4월) △대형장엄등 전시회, 창작등 및 행렬등 우수작 전시회,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연등축제 축하공연 한마당, 사찰비빔밥 무차만발공양(4월) △연등축제 전통예술특별전(4월) △봉축연합대법회,연등퍼레이드, 대동회향한마당(4월) △평가회 및 시상식(7월)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기획단은 2014부산연등축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월 15일~19일까지 4박5일간 대만등불축제에 참관할 예정이다. 대만등불축제는 대만 교통부 관광국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경 전국의 한 지역을 선정해 열리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등불축제로 올해 25회째 개최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티베트 명상치유·인재양성 '추진'

보리선수 약사선원 한국총본부 설립 결의

현대적인 티베트 명상치유 수련법을 국내에서 전파해 온 보리선수약사선원이 한국총본부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보리선수약사선원 한국총본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생 · 각성)는 1월5일 부산 송정 약사선원 11층 회의실에서 전국 5개 법당 주지 및 신도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총본부 설립을 결의했다.

부산 보리선수 주지 법생 스님은 "보리선 수행은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이 쉽고 빠르게 심신의 건강과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선수행법이다.

현재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방식을 총괄하여 상반기 내에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선원을 찾는 수행자들과 고통 받는 이들이 전국 어떤 선원을 찾더라도 수행과 신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라며 설립 취지를 전했다.

이어 법생 스님은 "지난 7년이 보리선 수행법을 전파하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7년은 보리선 수행법을 전파하는 법사진을 발굴하는 인재양성이 중요한 기간이다"고 강조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21C는 힐링, 명상과 관련한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한 명의 법사라도 더 발굴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보리선수 주지 각성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2558년이 흘렀고, 인도에서 불법이 전파되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달했으며, 이젠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며 "이렇듯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문화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만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하는 능력, 실용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보리선수 한국총본부의 방향은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즉신성취, 당생성취하는 구제중생의 원력을 전면에 실천하는 진심어린 불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사무실을 부산 해운대 송정 약사선원에 두고 3월까지 조직개편과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본부가 들어설 해운대 송정 약사선원은 지난 2013년 7월 경 문을 열고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대법당, 사무공간, 회의실,세미나실, 휴게실, 현대식 공양간과 수련시설 등을 겸비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밥 한 그릇으로 불법 인연 전하자"

조계종부산연합회 쌀전달식



조계종 부산연합회 자비의 쌀 증정식.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증정식을 가졌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은 1월 10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복지관 31개 단체에 자비의 쌀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사무총장 하림 스님을 비롯 지역 복지관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에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후원 한 쌀은 천만원 상당 총249포가 31개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향후 이 쌀은 복지단체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용으로 활용된다. 수진 스님은 증정식에 앞서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인연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고 불법과 소중한 인연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증정 소감을 전한 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진심을 다해 어려운 이의 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윤기혁 원장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이 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청정수행으로 불교계를 보살피는 대덕스님들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을 초심으로 갖고 일선에서 자비정신을 실천하겠다"고 31개 복지단체를 대표해서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부산 삼광사 청년회 연탄 나눔 봉사

부산 삼광사 청년회(회장 홍정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광사 청년회는 1월11일 부산 남구 우암동, 문현동, 감만동 일대에서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온정을 베풀었다.

이번 행사는 IBK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1가구당 100장 총 5000장의 연탄이 50가구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홍정표 청년회장을 비롯 박재본 시의원, 박두춘, 이진호, 김병태 구의원, 삼광사 청년회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 온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유난히 더 춥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청년들이 그 포문을 힘차게 열어 주니 새해에는 사회가 더욱 밝고 나눔과 온정이 넘쳐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광사청년회 홍정표 회장은 "작은 마음이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지혜가 이들에게 전해져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정표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회의 결속을 다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청년포교의 산실이 되는 청마의 해로 만들자"고 새해 청년회의 포부를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